

연구논문

이상과 에로센코의 연대(連帶)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현혜

국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현대소설 전공

temminck@hanmail.net

I. 서론

II. 이상의 에로센코 독서

III. 실험의학 속 인간과 동물 관계로 현상하는 동아시아의 근대 재난

IV. 우리 속 동물 · 수용소의 인간 해방을 위한 에로센코와의 연대

V. 결론

I. 서론

2000년대 이후 이상 문학의 사상적 패러다임을 규명하고자 하는 다각도의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다. 아나키즘 관련 개별 연구들도 사상 탐구의 일환이다.¹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아나키즘적 지향의 발생 시기를 1935년이나 1936년 이후로 잡고 있는데, 반체제적 지향이 초기 텍스트들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그 시기를 앞당겨 볼 여지가 있다. 초기 텍스트의 반체제적 지향 중 아나키즘과 관련되는 것이 있는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위의 문제의식하에 1930~1933년 사이에 쓰인 초기 텍스트들을 대상으로 아나키즘적 지향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그중 「지도의 암실」(1932)의 에로센코² 독서는 본고의 구심점이 될 것이다.

에로센코 관련 선행연구는 에로센코 독서가 확인되는 「지도의 암실」과 나카무라 쓰네[中村 穉]의 〈에로센코像(상)〉이 언급되는 「첫 번째 방랑」을 대상으로 에로센코에 대한 관심이나 그 배경 파악에 주력해 왔다.³ 이 연구들은

※ 이 논문은 202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4S1A5B5A17033273).

- 1 방민호, 『이상문학의 방법론적 독해』(서울: 예옥, 2015), 301~335쪽; 이보영, 『이상평전: 암호적 예술의 숲을 찾아서』(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고현혜, 「이상의 「실화」, 국화(菊花)와 영란동(鈴蘭洞)」, 『민족문화연구』 92(2021), 305~349쪽.
- 2 본고는 「지도의 암실」의 “에로시엔코” 표기를 엄두에 두고 선행연구나 번역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로센코’ 대신 ‘에로센코’라고 표기한다. 일본에서 친근하게 ‘에로씨」[エロさん]로 불렸던 그의 작품이 초창기 우리나라에 소개될 때 그의 이름이 ‘에로센코’로 소개된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 3 란명, 「이상 〈지도의 암실〉을 부유하는 “상하이”: 동아시아 현대문학생성의 시점에서 본 요코미쓰 리이치 수용」, 蘭明 외, 『李箱적 越境과 詩의 生成: 『詩と試論』 수용 및 그 주변』(서울: 역락, 2010a), 23~49쪽; 김미영, 「李箱 텍스트에 등장하는 예술가들」, 『구보학보』 9(2013), 171~196쪽; 송민호, 「모더니티의 첨단과 암실 사이의 공간(들): 이상, 에로센코, 나카무라 쓰네」, 『이상』이라는 현상: 작가 이상이 경험한 동시대의 예술과 과학』(서울: 예옥, 2014), 426~443쪽; 이동매, 「동아시아의 에로센코 현상」, 『한국학연구』 45(2017),

에로센코를 둘러싼 관심 및 동경이나 공감, 동아시아적인 예술적 연대에 대한 기대감 등을 규명해 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에로센코의 문학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보여 주지 않는 공통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해야 할 선행연구가 이 연구의 포문을 연 란명의 글이다. 란명은 이상의 사상과 고뇌 규명을 위해 에로센코 독서의 동기나 내용 고찰이 필요함을 제기하면서 에로센코로 대표되는 평화주의 및 세계주의, 동심주의 사상과의 연관성 검토를 요청한다. 란명의 글은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점에서 의의가 크다. 특히 에로센코 독서 목록이 「시간의 할아버지」, 「인류를 위하여」일 가능성을, 이 두 작품과 「지도의 암실」이 맺는 관련 가능성을 제기해 준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본격적 논의가 아닌 관계로 상세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선행연구의 공통된 한계는 에로센코 독서에 대한 천착의 미진함에서 기인한다. 에로센코 독서 목록이 무엇인가를 밝혀내고 그 내용을 규명하지 않는 한, 이상과 에로센코의 문학적 연대의 내용은 공백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선행연구의 성과를 발판으로 삼아 에로센코와의 연대가 초기 이상 문학에 어떻게 현상하며 그것이 우생학 및 사회진화론의 지식과 국가권력이 유착되어 전개된 근대 동아시아의 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2장에서는 이상과 에로센코의 연대의 토대라 할 수 있는 「지도의 암실」에 나타난 에로센코 독서 내용을 고찰한다. 먼저 란명에 의해 그 독서 목록으로 제기된 바 있는 「시간의 할아버지」와 「인류를 위하여」를 분석, 개괄하여 소개한다. 이후 두 텍스트가 에로센코 독서 목록에 해당되는지를 이상의 초기 텍스트들과

193~220쪽; 고현혜, 「이상의 컨버전스와 보자기 패러다임: 「지도의 암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5(2019), 353~421쪽.

비교, 검토해 규명한다. 3장에서는 「인류를 위하여」와 「황」 연작의 관련성을 실험의학 속 인간과 동물 관계라는 공통된 테마하에 고찰하면서 이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ана키스트들에게 있어 새롭게 의미화된 (동)아시아⁴와 관련된 것임을 밝혀 보고자 한다. 본고는 「황」 연작 중 실험의학과 관련된 작품인 「금제」, 「1931년(작품 제1번)」, 「황의 기 작품 제2번」과 「인류를 위하여」를 대상으로 이들 텍스트가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실험용 동물·인간이 처한 재난의 상황이 일제의 동아시아 점령 기획과 연관된 참변과 관련이 있음을 논의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에로센코와 이상의 공통된 해방 전략인 복수중(인간-개) 되기를 「인류를 위하여」와 「황」 연작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II. 이상의 에로센코 독서

1. 에로센코 독서 목록: 「시간의 할아버지」와 「인류를 위하여」

바실리 에로센코(Vasily Eroshenko, 1890~1952)는 20세기 초 근대 동아시아를 주 무대로 인류애적 세계관에 기초해 국제적인 문화예술적 연대를 꾀한 러시아의 맹인작가(시인, 동화작가)이자 에스페란티스트, ана키스트이다. 그는 톨스토이와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류애적 세계관 및 파격적 지성의 소유자이다. 그는 사회운동가이자 정치동화 작가로서 전 세계의 폭력과 갈

4 이 아시아는 강권에 대한 도전을 위한 연대의 장이자 원천이었고, 반제와 반일이라는 공유의식을 통해 전 세계의 피압박자·피압박 민족의 사회·정치적 해방이나 사회·정치 혁명이라는 초민족적, 세계주의적 전망을 가능케 하는 미래지향적 계획을 뜻한다. 황동연, 「20세기초 동아시아 급진주의와 '아시아' 개념」, 『大東文化研究』 50(2005), 121~165쪽.

등을 부추기는 억압적인 제도와 조건을 비판하고자 했으며, 구세대와 신세대 모두에게 그들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을 촉구한 인물이다.⁵ 그의 동화 「시간의 할아버지」⁶는 일본에서 추방된 뒤 고국에 돌아가지 못한 채 중국 북경의 루쉰, 저우쥔런 형제의 집에 기거하던 시절에 창작된 작품이다. 루쉰의 번역으로 1922년 12월 1일 《최보부간(最報副刊)》에 최초로 발표되었다.⁷

이 글에는 화자인 시인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북경의 현실과 과거 모스크바나 도쿄에서 진보적인 친구들과 어울려 활동했던 생활에 대한 향수, 북경에서 목도한 잘못과 죄악을 답습하는, 퇴보할 뿐인 인류의 상황으로 인한 고독이나 우울 등이 이야기된다. 나는 북경에서 만난 신세대들이 선대의 잘못과 죄악을 답습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인류 진보에 대한 낙관적 신념에의 회의와 인류 퇴화에 대한 우려로 고독에 시달림을 고백한다. 그러나 늘 그랬듯 자신의 종래의 신념을 고수함으로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자리에 든다. 하지만 끝내 잠을 못 이루고 짹짹거리는 시계 소리에서 두 가지 소리를 듣는다. 한 가지는 자신이 바라던, 선대의 죄값을 치르고 그 잘못과 죄악을 바로잡아 평화와 행복의 인류 사회가 구현되었다는 동료들의 소리이다. 다른 한 가지는 앞선 낙관적 희망의 소리를 무참하게 짓밟는 시간의 할아버지의 준엄한 훈계이다.

근대 인류를 향해 시간의 할아버지는 두 가지 훈계를 들려준다. 첫 번째는 역사 이래 인류가 이룩한 진보란 잘못과 죄악을 저지른 선대들을 숭배하며 그들의 행위를 답습하는 인간이라는 바보들의 행진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근대적 신교육으로 인류가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은 공상일 뿐이다. 두

5 Adam Kuplowsky, “Introduction,” in Vasily Eroshenko(ed.), Adam Kuplowsky (trans.), *The Narrow Cage and Other Modern Fairy Tal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3), pp. 11~41.

6 바실리 예로센코(저), 김정행(역), 「시간의 할아버지」,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슬픔』 (서울: 하늘연못, 2007), 126~138쪽.

7 란명, 앞의 글(2010a), 42쪽.

번째는 각양각색의 오래된 신들을 숭배해 온 인류가 자신들의 생명과 노동, 고통과 슬픔을 제물로 바쳐 수호해 온 이 신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인류의 참된 진보, 곧 평화와 행복이 구현된 사회란 있을 수 없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이 요지는 각양각색의 오래된 신들을 모시는 어느 크고 오래된 절을 둘러싼 이야기를 통해 전달된다. 이 이야기는 첫 번째 훈계의 요지를 문학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다.

숭배 대상인 각양각색의 오래된 신들은 인류가 역사 이래 구세대와 신세대를 막론하고 답습해 온 온갖 인류의 잘못과 죄악을 상징한다. 또한 새로운 공기와 햇빛이 절 안에 들어오면 그곳의 사람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는 전설의 금기와 장엄한 제사 의식으로 숭배의 체계를 공고히 하도록 방향 지어진 오래된 절은 대대로 잘못과 죄악을 답습하도록 구조화된 인류 문명 세계를 상징한다. 이 절의 오래된 신들은 절을 관리하던 젊은이들이 어느 불가사의한 봄날 햇빛을 그리워하다 신들에 대한 의심을 품고 금기를 꺾으로써 무너진다. 그러나 이내 나이 든 이들은 오래된 신들을 재건했고 젊은이들은 자유의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재건된 오래된 신들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시간의 할아버지는 이 절이 곧 다시 세워질 것이고 오래된 신들에 대한 젊은이들의 의식도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이야기를 끝맺는다. 나는 새벽에야 잠이 드는데 기상해 “불행한 생명을 바쳐서 인류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이라는 혼잣말을 하며 외출한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불행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예술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한편 「인류를 위하여」⁸는 에로센코가 일본에서 추방된 해인 1921년 직전이나 그 무렵에 창작, 발표된 일본 체류 시기의 작품이다.⁹ 이 동화는 이름난 해

8 바실리 에로센코(저), 길정행(역), 「인류를 위하여」,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슬픔』(서울: 하늘연못, 2007), 202~229쪽.

9 劉菲, 「魯迅と『エロシエンコ童話集』」, 『熊本大学社会文化研究』 7(2009), 223쪽.

부학자 부친을 둔 화자 “나”가 부친의 친구인 여러 해부학자들로부터 들은 해부학 실험 관련 몇 가지 얘기 중 한 가지를 독자에게 소개하는 액자식 구성의 이야기이다.

나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동물을 실험에 사용하거나 큰 병원을 경영하면서 위독한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삼는 부친의 몇몇 친구들과 달리 실험을 위해 부검을 거의 하지 않는 인물이다. 나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뇌와 척수 연구로 명성이 난 해부학 박사 K에 대한 것이다. K는 연구를 위해 자신의 저택에서 수백 마리의 여러 종의 실험동물을 키우며 지속적으로 잔인한 동물실험을 한다. 실험을 실시할 때마다 동물의 울부짖음이 들리지만 어느 누구도 마음 쓰지 않는데 유독 K의 어린 아들만이 이를 고통스러워한다. 이를 알게 된 K는 아이를 “퇴화된 녀석”으로 여기고 실험대상으로 삼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K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더욱 잔인한 동물실험을 하곤 했는데, 아이가 아홉 살 되던 어느 날 총명한 실험용 강아지 L이 K의 뇌수 해부실험의 대상이 된다. L의 비명을 들은 아이가 실험실에 들어와 그의 해부를 중단시키자 화가 난 그는 해부용 메스를 휘둘러 아이에게 앞이마에서부터 머리 뒤편까지 이어지는 큰 상처를 입힌다. 주목되는 것은 K의 실험을 중단시키려 뛰어든 고통받는 아이의 모습이 광견병에 걸린 개나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상 반응을 보이는 실험동물의 모습과 동일하게 표현된다는 점이다. 이후 아이와 L은 실험으로 인해 상처받은 동물이라는 동계의 자리에서 묘사된다.

오직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K의 생체실험에 대한 소신은 굳건하다. 그는 인간생체실험을 할 수만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놀라운 뇌수 연구의 성과를 얻으리라 확신한다. 이러한 확신에 기초한 의욕은 아이라는 대상에게로 향하고 이를 감지한 아내는 아이를 보호하고자 애쓴다. 자신이 L과 같은 처지에 놓였음을 눈치챈 아이 또한 잠 못 이루다 L에게 이끌려 그의 가정을 방문한다. 이 방문에서 아이는 개들로부터 인간과 동물은 입는 옷이 다를 뿐 별반

차이가 없으며 동물들도 진화하며 인간에게서도 퇴화된 것이 많다는 인간중심주의를 전복시키는 견해를 듣게 된다. 아이는 내심 분노를 느끼지만 다른 한편 인간중심주의가 설정한 인간과 동물 관계의 불의(不義)를 무의식적으로 자각한다. 아이는 개들과 어울려 놀던 중 L이 벗어 놓은 강아지 옷을 입는 중 경계 넘기를 수행하게 되고, 이를 환영하는 L은 이후 자신의 어머니에게 자신의 옷과 똑같은 강아지 옷을 아이를 위해 지어 줄 것을 부탁한다. 문제는 아이의 L 되기가 단지 아이가 생각하듯 꿈속의 일이 아니라는 데에서 발생한다. 어느덧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된 아이와 L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로 한 몸 같은 존재가 되고 K도 이를 알게 된다.

K는 연구가 진척될수록 총명한 L의 머리를 해부하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데, 어느 날 L과 함께 K의 아들도 사라진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실험실 벽에 걸린 앞마로부터 머리 뒤편까지 칼자국이 있는 개가죽이 아들의 것이라 여기며 K를 추궁하고 이에 그는 아내를 미친 사람 취급한다. 이후 K의 아내 또한 사라지는데 사라진 이들을 두고 무성한 소문이 돈다. 이후 두 주 후 K는 단기 간의 뇌수 연구로 세계적으로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했고 그는 그 공로를 자신의 집에서 기른 총명한 작은 개에게 돌린다. 그의 친구들은 이 개가 L이라고 여긴다. 그러던 어느 날 K는 실험실에 들어온 작고 사랑스러운 미친개를 해부하려다 그 개에게 물려 죽는데, 죽기 전 한 통의 편지를 남긴다. 이 글을 통해 그가 그동안 이 개를 제대로 사랑해 주지 못했음을, 살면서 한 번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동화를 들려주지 않았음을 후회하며 태어나 처음으로 시 짓기와 음악 연주의 의욕을 갖게 된 심경의 변화를 맞이했음을 알 수 있다. K의 친구들은 이 개가 L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K의 뇌수연구의 기폭제가 된 L이 어떻게 살아있었는지 의아해 한다. 이상이 나가 들려주는 이야기의 전말이다.

나머지는 나의 두 가지 회고담인데, 모두 K의 일을 화제로 다룬다. 한 가지는 몇 해 전 자신의 대학시절 스승이기도 한 저명한 해부학자를 방문해 나눈

이야기이며, 다른 한 가지는 부친에게 K의 실종된 아이와 부인이 실험대상이 되었는데에 관해 물은 질문과 아니라는 부친의 답변에 대한 것이다. 전자 속 해부학자는 K와 마찬가지로 뇌수를 전공한 이로 생체실험에 대한 소신까지 동일하다. 그는 K의 연구성과를 두 명의 인간생체실험의 결과로 확신하며 그에 맞먹는 결과를 얻기 위한 인간생체실험에 대한 의욕을 드러낸다. 후자 속 부친의 답변에 대해 나가 K가 아이를 죽이지 않은 증거가 있냐고 묻자 부친은 묘한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앞이마에서 머리 뒤편까지 나 있는 상처를 만지면서 자신이 K의 아들임을 깨닫는다. 결국 나가 들려준 이야기 속 K와 그의 아들은 나의 과거 부친과 어린 시절의 모습을 가리킨다. L에게 물려 죽었다는 K는 L 되기를 수행한 그의 아들을 통해 심경의 변화를 맞아 과거 해부학자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얻게 된 나의 부친을 상징한다. 동물실험에 대해 갖게 된 새로운 소신, 곧 “과학이 재료로 인해 진보한다는 따위의 말”을 “어리석은 자들이 흔히 해대는 말”로 간주하는 의식은 그의 갱생을 증명한다.¹⁰

2. 에로센코 독서 목록 및 상호텍스트성 검토

란명은 이상의 에로센코 독서 목록으로 위 두 작품을 지목한 바 있다.¹¹ 그 근거는 「지도의 암실」과 위 두 텍스트의 인류 문명론적 테마의 유사성, 그러한 테마 구현을 위해 동원한 시간이나 옷 등의 기호의 일치성이다. 물론 그는 이상이 에로센코 독서를 통해 얻게 된 기호나 테마를 다르게 형상화함을 언급한다. 「인류를 위하여」와 관련해서는 「지도의 암실」의 그의 분신들 중의 한

10 바실리 에로센코(지), 길정행(역), 「인류를 위하여」, 앞의 책(2007), 228~229쪽.

11 란명, 앞의 글(2010a), 41~44쪽.

명인 K가 「인류를 위하여」의 해부학자 K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 이름만 일치할 뿐 이들의 유사성은 없다. 「지도의 암실」의 K는 잔인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해부학 박사 K와 달리 세속화된 기독교적 성향을 보이는 인물이다.¹²

또한 옷이라는 기호가 「인류를 위하여」와 「지도의 암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사용 맥락이 다르다. 전자에서 옷은 동물이라는 큰 범주 속 종 구별의 유일한 표지이지만 그것은 옷의 유무가 아니라 옷의 형식일 뿐으로, 여기서 옷은 인간과 동물 간의 유사성을 드러내거나 경계 넘기를 위해 활용된다. 후자에서 옷은 억압적인 사회적 관습의 표지이거나 분열된 자아 혹은 인류를 융합하는 차원에서 활용된다.¹³ 게다가 위 두 작품이 구체적으로 다루는 테마는 상이하다. 전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해부학자의 실험 의학으로 현상되는 근대 인류의 타자, 곧 동물 및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데 비해 후자는 근대문명의 어두운 심연을 들여다보고 그 구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글쓰기의 문제를 다룬다. 따라서 「인류를 위하여」를 에로센코 독서 목록에 포함시킬 수는 있어도 「지도의 암실」과 직접 관계된 텍스트로 상정하기는 어렵다. 이에 비해 「시간의 할아버지」는 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보여 준다. 이는 선행연구가 언급한 바 있는, 「지도의 암실」속 근대 인류를 향해 경종을 울리고자 하는 시인의 사원의 종소리화나 십자가 예수의 성의의 성격을 갖는 K의 외투·저고리와 관련된 산책이라는 글쓰기 표상에서 확인된다.¹⁴

이 두 작품이 공유하는 큰 범주의 항목은 3가지이다. 첫째, 인류 평화에 대한 꿈과 그 꿈을 망각하게 하거나 실현 불가능하게 하는 퇴화된 인류 문명의 암담한 상황이 이야기된다. 둘째, 선형적인 근대적 시간관이나 그로 대변되

12 이상, 「地圖의暗室」, 『정본 이상문학전집 02-소설』(서울: 소명출판, 2005b), 147쪽, 151쪽.

13 위의 글, 147~148쪽, 155쪽.

14 고현혜, 앞의 논문(2019), 380~406쪽.

는 인류 진보의 낙관주의에 대해 반박하는 오래된 시간의 흔적이 등장한다. 셋째,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예술적 의지가 표현된다.¹⁵

한편 「인류를 위하여」가 다루는 테마를 고려할 때 이 텍스트와 직접 관련된 이상의 텍스트는 실험의학상의 동물실험이나 인간과 우리 속 동물의 관계로 근대문명의 문제를 다룬 「황」 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근대 재난의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인간중심주의가 낳은, 동물 및 비인간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에 대한 도구화와 생명 폭력에 관한 것이다. 이들이 공유하는 큰 범주의 항목만 추려도 9가지가 확인된다.

첫째, 뇌수 전공의 의학박사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동물실험, 실험 동물 개가 등장한다. 둘째, 동물을 인간보다, 감성을 이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의학박사의 인간중심주의나 이원론적 세계관이 나타나 있다. 셋째, 우리 속 동물과 같은 처지에 놓인 비인간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의 상황이 언급된다. 넷째, 동물실험의 주체인 의학박사를 물어 죽게 한 개가 언급된다. 다섯째, 실험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그들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인간 주체마저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 뿌리 깊은 인간중심주의가 이야기된다. 여섯째,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을 전복시키는 사유가 등장한다. 일곱째, 옷의 형식으로만 구분될 뿐 별반 차이가 없는 인간과 동물의 유사성이 언급된다. 여덟째, 고통받는 실험동물이나 우리 속 동물에 대한 인간의 공감 및 돕고자 하는 마음이나 행동, 인간과 개의 대화 및 교류, 우정이 그려진다. 아홉째, 친분이 두터워져 한 몸 같은 존재가 된 인간과 개의 종의 경계를 뛰어넘는 복수종(인간-개) 되기가 나타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3~4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15 이상, 「地圖의暗室」, 앞의 책(2005b), 147쪽, 150~151쪽, 153쪽, 155~156쪽.

이처럼 「황」 연작은 「인류를 위하여」를 토대로 발상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테마나 모티프 등에서 유사성이 많이 발견되는 작품이다. 1931~1933년 사이에 쓰인 이 연작¹⁶은 시기적으로 에로센코 독서가 확인되는 「지도의 암실」의 창작 시기나 발표 시기와 맞물려 있는 작품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초기 텍스트가 창작, 발표된 무렵의 에로센코 독서 목록에는 에로센코의 위 두 작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실험의학 속 인간과 동물 관계로 현상하는 동아시아의 근대 재난

1. 「시간의 할아버지」·「인류를 위하여」의 인류 퇴보의 현장: 일본 동아시아 점령 기획하의 연쇄적 참변

시간의 할아버지는 인류를 결코 “충명해질 수 없는 존재”로, 인류 진보의 역사를 바보(들)의 행진으로 규정한다.¹⁷ 이러한 인식의 배후에는 선대의 잘못과 죄악을 숭배하며 답습하는 인류 행위의 역사적 현장이 놓여 있다. 또한 「인류를 위하여」의 개들의 눈에 비친 “퇴화되어 가는 것들이 개나 호랑이의 옷으로 갈아입지 않고, 인간으로 진화라도 한 듯이 흉내”¹⁸ 내는 인류 모습의 배후에는 다른 생물종이나 동일종 내 다른 인간집단들에 대해 야만적 행위를 자행하면서 이를 인류의 진보, 문명화 사업으로 여기는 인류 퇴보의 역사적

16 조은주, 「이상의 「황」 연작시와 '개' 이미지, 신범순 외, 『이상의 사상과 예술: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2』(서울: 신구문화사, 2007), 123쪽.

17 바실리 에로센코(지), 길정행(역), 「시간의 할아버지」, 앞의 책(2007), 130쪽.

18 바실리 에로센코(지), 길정행(역), 「인류를 위하여」, 앞의 책(2007), 215쪽.

현장이 가로놓여 있다. 위 두 작품의 인류 퇴보의 맥락은 방대한 폭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 작품의 창작 배경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가령 「시간의 할아버지」는 에로센코가 잠시 러시아 고향집을 방문했을 때, 스탈린 정부에 의한 고향집 파멸을 목도한 이후 창작된 것이지만,¹⁹ 이 작품의 역사문화적인 맥락은 볼셰비키의 폭력성에 한정되지 않는다. 에로센코의 작품 독해에 있어 그의 철학의 열쇠²⁰는 금과옥조와 같은 것이다. 또한 「인류를 위하여」와 이에 영향받은 「황」 연작은 작품 내용만 놓고 본다면 인간중심주의에 의해 자행된 동물 및 비인간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에 대한 도구화와 폭력의 문제를 다룬 것이다. 따라서 당대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본의 제국주의적 억압이나 폭력과 직접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는 다소 박약하다.

그러나 1920년대 일본과 중국 체류 시기에 생산된 위 동화들이 갖는 정치 동화로서의 성격이나 그에 영향받은 이상의 초기 텍스트들의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작품들이 그것이 생산된 동아시아의 역사·정치경제·사회문화적 맥락과 무관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위의 인류 퇴보의 역사적 현상이 에로센코가 활동했던 동아시아의 역사적 좌표 속에 위치한다고 본다면 그의 문학을 읽는다는 것은 곧 이 좌표 속에서의 읽기를 의미한다. 즉 그것은 당대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우생학 및 사회진화론에 근거한 일본의 팽창주의를 비판하면서 초민족적 상호부조 사상을 외친 에로센코²¹의 정치적 무의식 탐문 작업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위 두 작품의 창작 시기가 근접한 점을 감안해

19 Adam Kuplowsky, *op. cit.* (2023), pp. 29~30.

20 에로센코는 청중에게 “내 나라는 세계이고, 인류는 내 민족이며, 내가 사랑하는 언어는 에스페란토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기억하면 내 모든 글과 연설에서 내 철학의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에서 재인용. Eroshenko, “The Woman and Her Mission,” *Beijing Nuzi Gaodeng Shibfan Zhoukan* (December 3, 1922), p. 8; *Ibid.*, p. 15.

21 이동매, 앞의 논문(2017), 215쪽.

공통적 창작 배경이 될 만한, 에로센코가 경험했을 인류 퇴보의 현장을 추정해 볼 필요가 있다. 위 두 작품이 은폐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의 실재, 곧 이들 작품에 새겨진 인류 퇴보를 증명하는 역사의 흔적은 무엇일까. 본고는 이 해답의 실마리를 「인류를 위하여」와 「황」 연작이 공유하는 테마, 곧 근대 실험의학의 도구로 활용되는 동물·비인간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이 처한 재난에서 발견해 보고자 한다.

우생학 및 사회진화론의 지식과 국가 권력이 유착되어 전 세계의 여러 나라에 전염병처럼 번진 제국주의는, 비인간 동물의 야만성을 비판하며 그들과의 다름의 표지로 위대한 인간 이성을 내세우는 근대 인류가 그들의 야만성을 증명한 인류 퇴보의 현장이었다. 서구 열강들의 팽창주의 정책을 숭배하며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천황제하의 군국주의적 전체주의, 과시증적 제국주의라는 독자적 길을 닦아 내달려 간 동아시아 국가가 바로 일본이었다. 후발주자로서 늦게 출발한 일본이 서구 열강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단기간 안에 동아시아 점령이라는 성과가 필요했고 그 성공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분히 많은 전략적 실험들이 요구되었다. 일본의 동아시아 점령 기획이 초래한,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적 현장에서 발생한 여러 차례의 재난, 참변들은 이 실험과 무관하지 않다. 주목할 것은 그것이 근대 실험의학의 현장에서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온 종차별주의에 근거한 잔혹 행위²²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20세기 전반의 비인간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들에 대한 폭정은 동물들에 대한 인간 폭정의 연장선상이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에로센코는 이러한 폭정이 낳은 근대의 재난을 동아시아의 현장에서 목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이 「시간의 할아버지」와 「인류를 위하여」의 배경음으

22 피터 싱어(저), 김성환(역), 『동물해방』(고양: 연암서가, 2012), 89쪽, 101~104쪽.

로 깔려 있는데, 전자에서는 퇴보하는 인류의 문제로, 후자에서는 실험의학
속 인간과 동물 관계로 현상한다. 전자에서 폭로되는 근대적 신교육에도 불
구하고 선대의 잘못과 죄악을 숭배하며 답습하는 바보의 행진을 지속할 뿐
인 퇴보하는 인류의 모습은 에로센코가 바라본, 역사의 진보를 외치며 문명
화의 길을 걷는 근대 인류의 참 모습이다. 그 실체의 구체적 모습이 「인류를
위하여」에서 확인된다. 근대 의학적 주체의 인류 진보를 위한 이성적 열정으
로 추동되는, 실험동물에 대한 야만적 폭정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작품의 배경음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동아시아 재난의 역
사적 현장은 어디일까. 위 작품들이 근접한 시기에 창작된 점을 고려한다면
「시간의 할아버지」의 “나”에 의해 고백되는 북경생활의 심경²³은 중요한 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심경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고독이다. 그것
은 통상적 외로움이 아니라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자유와 평화, 행복을 누리
며 공존하는 참된 진보를 이루는 인류 사회에 대한 나의 꿈으로 말해지는 에
로센코적 인류주의가 맞닥뜨린 총체적 난국을 표상한다. 따라서 그 진짜 원
인은 나의 북경생활의 심경을 지배하는 인류 퇴보의 역사적 현장일 가능성
이 높다. 위 두 작품의 창작 시기에 염두에 두었을 동아시아의 역사적 참변
은 1920년의 연해주참변, 간도참변일 가능성이 크다. 일본 및 중국 체류 시
기 에로센코가 보여 준 조선(인)에 대한 깊은 관심과 그에 따른 실천²⁴은 이

23 바실리 에로센코(저), 길정행(역), 「시간의 할아버지」, 앞의 책(2007), 127~129쪽.

24 일본 체류 시기 조선에 대한 깊은 관심은 1921년 5월 초 일본 사회주의 동맹 대회의 참
가로 혹독한 구류생활을 치르고 풀려난 뒤 조선인 모임에 참석했다는 사실이나 1921년
4월 16일, 효민회의 주최로 열렸던 문예강연회에서 한 연설 ‘제앙의 잔’(*民國日報*, 覺悟,
1922년 5월 26일)을 통해 잘 나타난다. 최근 러시아에서 발굴된 에로센코 신상서를 통해
그가 위 조선인 모임 참가에 앞서 1920년 12월, 조선 독립을 비롯한 아시아 민족의 해방
및 사회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도쿄에서 결성된 단체인 코스모 클럽(Kosmos-Klubo)의
회원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중국 체류 시기에도 일본의 조선 침략을 비판하며
조선에 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실천을 보여 줬다. 이동매, 앞의 논문(2017), 200~203쪽,

추정을 뒷받침해 준다. 특히 위 실천 중 제국주의 팽창욕에 취해 있는 근대 일본의 손에 들린 촉배가 독배임을 시사하는 그의 일본어 강연 ‘재앙의 잔’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는 일본의 정치가들에게 그들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재난으로 취급해 조선인을 억압하기 때문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더 악화되며 국가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언급은 1920년 4월 연해주침변, 1920년 10월~1921년 5월의 간도침변을 암묵적으로 겨냥한 것이자 1923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이후 발생할 관동대학살까지도 예견한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보아야 한다. 위 언급은 연해주침변, 간도침변이 재난으로 기획된 국가 전략의 산물이라는 점을 시사하는데, 실제로 이 침변들은 동아시아 점령 기획하에 단계적으로 진행된 연해주침략, 만주침략을 위한 구도에서 감행된 것이다.²⁵ 그것은 다분히 동아시아 점령이라는 성공적 결과물을 얻기 위해 치밀히 계획된, 무수한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한 단계적 생명 학살 실험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시간의 할아버지」에서 겨냥하고 있는 퇴보하는 현 인류에는 위 침변들을 일으킨 근대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제국주의적 팽창과 제국주의 기획을 보완하는 의학적 실행이 맺는 관계를 고려하면 「인류를 위하여」의 오직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K의 잔혹한 다량의 동물실험은 일본이 일으킨 위 침변들에 대한 우회적 표현으로, 실험동물의 고통에 공감하며 동물실험을 막고자 애쓴 아이는 조선(인)에 대해

208~212쪽; アニケーエフ・セルゲイ・イワーノヴィチ, 「大正期日本滞在中エロシエンコと在日朝鮮人ととの接触の可能性について」,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006), 87~88쪽; 太田哲男, 「高杉一郎とエスペラント」, 『桜美林大学研究紀要 人文学研究』 3(2023), 175쪽.

25 조원기,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침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2012), 203~234쪽; 장성규, 「1920년 ‘혼춘사건’(璦琿春事件)과 일본군의 ‘간도출병’(間島出兵)’ 재검토」,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20).

깊은 관심을 표명했던 에로센코로 읽힐 수 있다. 그는 바보의 행진을 보여 주는 일본이 과거 정체성의 죽음이라는 젖값을 치르고 다시 태어난 K처럼 갱생하기를 염원했을 것이다.

2. 「황」 연작의 동물·비인간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 실험과 영혼 에메틴 중독사건

실험의학의 의학적 주체와 실험동물은 「인류를 위하여」와 「황」 연작의 공유향이다. 「황」 연작 중 「禁制(금지)」²⁶와 「猯의 記 作品 第二番(황의 기 작품 제2번)」²⁷에는 공통적으로 의과대학병원 실험용 동물로 강제로 공양된 시적 화자 “나”의 목장의 술한 개들과 그 동물실험의 주체인 의학박사가 등장한다. 이 의학박사가 구체화된 것은 「황의 기 작품 제2번」인데, 여기서 그는 “나의 主治醫 R醫學博士”로 소개된다. 그는 동물에게 잔인한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犠牲動物供養碑 … 建立期成會의 會長”이기도 한 인물로 자신의 연구를 위해 술한 동물들이 희생되었음을 인지하는 이성적 인물이기도 하다. 문제는 그가 건립을 추진한 희생동물공양비가 철저히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동물의 도구화, 동물들에 대한 생명 폭력을 정당화하는 상징물이라는 점에 있다. 희생동물공양비 제막식 기념 메달을 받는 그의 모습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나의 牧場을 守衛하는 개” 황이 그 제막식에서 메달을 달려는 그의 오른팔을 물어뜯어 결국 그를 죽게 한 것도, 나가 황이 물고 온 그 오른팔을 공양비 근처에 묻은 것도 그의 의학발전을 위한 공헌이라는 미명하에 정당화되는 동물실험이 야만과의 유착일 뿐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26 이상, 「禁制」, 『정본 이상문학전집 01-시』(서울: 소명출판, 2005a), 110쪽.

27 이상, 「猯의 記 作品 第二番」, 『정본 이상문학전집 01-시』(서울: 소명출판, 2005a), 179~184쪽.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폭정이 비인간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들에 대한 폭정으로도 이어진다는 점은 「인류를 위하여」와 마찬가지로 「황」 연작에서도 이야기된다. 「금제」는 이상이 결핵이나 성병으로 의과대학병원을 찾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나”는 의학박사의 논문을 위해 연구대상이 되고 있는 자신이 위 개들과 마찬가지로 ‘금제’의 자리에 위치해 있음을 말한다. “論文에 出席한 억울한 軀體에는 千古에 氏名이 업는 法이다”는 그들이 처한 실험 동물의 상황을 보여 준다. 나가 동물들과 동격에 놓이는 원인은 우생학적, 사회진화론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는 전염병자, 식민지인이기 때문이다.

한편 「황의 기 작품 제2번」은 「인류를 위하여」의 해부학자 K와 동일하게 뇌수를 전공한 R의학박사가 “나”의 두뇌를 정기적으로 진찰하고, 뇌수술을 담당해 왔음을 보여 준다. 여기서 나는 특이한 두뇌의 소유자로 등장한다. 나는 연결신경으로 이어진 두 개의 뇌를 가진 존재이다. 위 박사는 나의 “두 個의 腦髓 사이에 생기는 連結神經을 … 癌이라고 완고히 주장”, 정기적으로 그 신경을 자르는 수술을 실시한다. 나는 원치 않음에도 위 박사의 수술실을 찾아가 위 수술을 의뢰해야 했음을 전하는데, 이 강제성은 나가 나의 목장의 개들과 마찬가지로 실험대상으로 공양된 존재임을 보여 준다. 주목할 것은 나가 위 박사의 진단과 수술행위를 철저한 “二元論的 生命觀”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연결신경으로 이어진 두 개의 뇌를 가진 나의 생명관이 일원론적인 것이며, 그러한 생명관은 근대 의학체계에서는 암으로 진단되어 근절되어야 할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려 준다. 이 시의 테마가 인간과 동물 관계임을 염두에 둘 때 위 박사의 이원론적 생명관이나 나의 일원론적 생명관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전자가 근대의 이분법적 세계관에 따라 인간과 동물을 위계적으로 구분 짓고 분리시키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의 소유자라면, 후자는 인간과 동물을 별반 다르지 않은, 동일한 자연생태계 안에 자리

한 동등한 위치의 연속체적 존재로 바라보는 탈인간중심주의적 관점의 소유자이다. 여기서 나의 관점이 에로센코가 「인류를 위하여」에서 아이와 L의 연속체적 관계를 통해 보여 준 관점과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R의학박사의 관점은 「인류를 위하여」의 K박사의 관점에 상응한다.

전술한 이상의 두 작품은 「인류를 위하여」와 마찬가지로 근대 실험의학상에서 벌어지는 생명정치의 문제적 상황을 다룬다. 우생학,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열등하다고 간주되는 인간들은 근대 실험의학에서 실험동물의 위치에 놓였고 의학적 주체의 연구 도구로 활용되었다.²⁸ 이러한 근대 실험의학의 문제가 위 에로센코와 이상의 작품이 공통적으로 다루는 테마다. 물론 이상이 다루는 것은 식민지 실험의학상의 문제라는 점에서 「인류를 위하여」와 변별된다. 위 이상의 작품에서 식민지 실험의학상의 문제는 강제로 실험동물로 공양된 개와 동일시되는 인간의 상황, 곧 식민지인의 구속과 도구화의 현실을 나타낸다. 그러나 식민지 실험의학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는 못한다.

이 아쉬움을 해소시키는 작품이 식민지 실험의학에서 벌어진 의료 사고를 다룬 「1931년(작품 제1번)」²⁹이다. 12연으로 구성된 이 시의 1~2연은 이 의료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 1연 첫 행인 “肺가 盲腸炎을 앓다. 第四病院에 入院. 主治醫 盜難—亡命의 소문나다”는 해당 의료사고를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여기서 “나”가 폐 질환과 맹장염을 중첩적 혹은 연쇄적으로 앓고 있으며, “第四病院에 入院”했으나 치료를 담당해야 할 주치의가 어떤 문제를 일으켜 “盜難—亡命”했음을 알 수 있다. 주치의가 일으킨 문제는 의료사고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지는 병원에 입원해 그에게 치료를 받았던 나가 현재 앓고 있는 병증을 통해 추정해 볼 수 있다. 나의 병증은 폐 질환 및 맹

28 피터 싱어(저), 김성한(역), 앞의 책(2012), 153~155쪽.

29 이상, 「一九三一年(作品 第一番)」, 『정본 이상문학전집 01-시』(서울: 소명출판, 2005a), 174~178쪽.

장염뿐만 아니라 “胃病併發 … 顔面蒼白. 貧血”, 급성 심장 마비의 원인이기도 한 “狹心症”까지도 연쇄적으로 동반한다. 이러한 병증은 어떤 질병과 관련된 것일까. 우선 “肺가 盲腸炎을 앓다”를 단서로 삼자면 병증이 한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 내장과 폐가 관련되어 발생하는 질환임을 알 수 있는데, 그러한 것으로는 폐흡충증이 있다. 폐흡충에 감염되는 경로나 폐흡충증이 일으키는 증상³⁰을 염두에 두면 위 구절은 맹장에서 머물던 폐흡충이 폐 조직에까지 침범해 맹장염과 폐 염증을 중첩적 혹은 연쇄적으로 발생 시킨 폐흡충증의 형상화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나가 연쇄적으로 위병과 심장병까지도 앓는다는 점이다. 폐흡충증과 무관한 이 질병들은 도망간 주치의가 일으켰을 의료사고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폐흡충증 관련 대표적인 의료사고로는 1927년 영흥 및 해남 지역에서 발생한 에메틴 중독사건이 있다.³¹ 집단 사망까지 초래한 이 사고는 일본 식민 정부가 식민지 개척이나 지배에 필요로 하는 폐흡충증 치료약물 개발을 위해 에메틴 주사가 가진 중독 위험을 알고 있음에도 조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강행한 결과 발생한 것이다. 이 약물을 과다 투여 시 진신 권태, 보행 곤란, 소화 불량을 비롯해 심장 쇠약과 심장 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책임자인 다카하시(高橋) 위생과장의 야반도주가 신문 기사를 통해 알려진 위 사건을 염두에 두면 나의 위병 및 심장병이 에메틴 주사 중독 증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에는 폐흡충증 조선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강행된 임상실험이 야기한 의료사고라는 식민지 실험의학상의 재난의 역사적 흔적이 새겨져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상은 왜 이 시를 위 의료사고와 결부해 형상화하고 있는 것일까. 이 시는 3연의 “一九三二年 五月 七日(父親의 死日) 大理石發芽事件의 前兆”

30 대한감염학회, 『감염학』(과주: 군자출판사, 2007), 1070쪽.

31 신규환, 「지방병 연구와 식민지배: 1927년 영흥 및 해남지역 에메틴 중독사건을 중심으로」, 『醫史學』 18-2(2009), 180~185쪽.

와 4연의 “腦髓替換問題 드디어 重大化되다”가 암시하듯, 백부 김연필의 사일을 기점으로 그의 통제 아래 있던 자연인 김해경으로서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인공적 존재, 곧 이상으로서의 삶을 기획했음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이상은 이 시의 1~2연에서 자기 자신이기도 한 시적 화자를 에메틴 중독을 앓는 조선인 폐흡충증 환자로 설정해 놓고 그가 주치의마저 도망가 버린 상태에서 “自宅治療”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이 자택치료의 형상화는 그것이 뒤늦게 시작하는 예술가로서의 삶, 곧 인공적인 거울상으로서의 문학 창작임을 보여 준다. 본래 화가를 꿈꾸었던 이상은 백부의 의견에 따라 그 꿈을 접고 경성고공 졸업 후 조선총독부 기수로 근무한다. 하지만 백부의 사망 후에는 기수직을 사임하고 본격적으로 예술가로서의 삶을 살았다. 이러한 삶의 행적을 감안하면 위 사건을 상호텍스트로 활용한 이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한 것이 무엇인지 짐작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백부의 권유와 인도로 선택되었던 조선총독부 기수로서의 김해경의 삶은 식민지 실험의학상의 도구화된 삶과 동물의 것이었다는 인식이다. 실제로 이러한 깨달음은 「얼마 안 되는 변해」에서도 확인된다. 이 수필에는 전매청 본사 사옥을 직접 설계, 감독했으나 정작 낙성식 자리에서 소외된 자신이 “最下級技術者”, 곧 일본 식민당국에 봉사하는 일개 노예에 지나지 않았음을 깨닫는 장면이 등장한다.³² 위 시는 식민 당국의 생명정치에 의해 호모 사케르화 된 이상 자신의 삶에 대한 직시를 담고 있으며 그 깨달음에 기초해 비인간 동물로 간주되는 인간으로서의 삶에 종지부를 찍고 위의 생명정치에 대해 저항하는 주체적인 문학예술가로서의 삶을 기획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가 꾀한 저항적 맥락의 문학예술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3~12연을 통해 암시된다.

32 이상, 「얼마 안되는 辨解(혹은 一年이라는 題目)」, 『정본 이상문학전집 03-수필·기타』(서울: 소명출판, 2005c), 141~142쪽.

IV. 우리 속 동물·수용소의 인간 해방을 위한 에로센코와의 연대

1. 인간과 동물의 공감과 유대를 통한 종 경계 횡단 및 복수종(인간-개) 되기

일본의 제국주의적 억압이나 폭력을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인류를 위하여」와 「황」 연작은 우리 속의 동물로 수렴될 수 있는 동물 및 인간의 연대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선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우리 속 동물, 수용소의 인간부터 살펴보고자 하자.

「인류를 위하여」에서 전자는 K박사의 실험동물들이며 후자는 이들과 동격에 놓이는 K박사의 어린 아들이다. 「황」 연작의 경우 전자에는 우리 속의 개, 실험동물로 강제로 공양된 개들 등이 있다.³³ 후자는 유치장에서 능욕을 당하는 존재,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 시체로 위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자, 의학박사의 연구를 위한 실험의 대상, 식민지 실험의학의 도구로 활용되어 부작용을 겪는 환자 등이다.³⁴

「인류를 위하여」의 아이가 우리 속 동물, 수용소의 인간 해방을 꿈꾸는 에로센코의 반영이라면 「황」연작 속 수용소의 인간은 일제 식민지라는 감옥에 갇힌 작가 이상의 반영이다. 이상은 에로센코와 마찬가지로 수용소의 인간을 우리 속 동물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첩시킨다. 그들 간의 경계를 모호하

33 이상, 「獠」, 『정본 이상문학전집 01-시』(서울: 소명출판, 2005a), 169쪽; 이상, 「禁制」·「獠의記 作品 第二番」, 앞의 책(2005a), 110쪽, 179~180쪽; 이상, 「無題」, 『정본 이상문학전집 01-시』(서울: 소명출판, 2005a), 161쪽.

34 이상, 「獠」, 위의 책(2005a), 170쪽; 이상, 「獠의記 作品 第二番」, 위의 책(2005a), 180쪽; 이상, 「作品 第三番」, 『정본 이상문학전집 01-시』(서울: 소명출판, 2005a), 185쪽; 이상, 「禁制」, 앞의 책(2005a), 110쪽; 이상, 「一九三一年(作品 第一番)」, 앞의 책(2005a), 174쪽.

게 흐리고, 공감과 유대를 증진시키며 더 나아가 종 경계의 횡단, 복수종(인간-개) 되기를 꾀한다. 「인류를 위하여」의 아이가 L의 처지에 공감하면서 그와 서로 분리될 수 없을 만큼 절친한 친구가 되고 인간-개 되기를 수행하는 모습은 「황」 연작의 수용소의 인간이 우리 속 동물과 나누는 공감과 우정,³⁵ 그의 종 경계 횡단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인간과 동물에 대한 이상의 견해는 옷의 형식만 다를 뿐 인간과 동물이 별반 차이가 없음을 개의 발언을 통해 표명한 「인류를 위하여」의 에로센코의 견해와 다르지 않다.³⁶ 이 둘 모두 인간과 동물을 옷의 유무가 아니라 형식으로 구별함으로써 그들 간의 유사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종 경계 횡단의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 이들은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위계화하는 인간중심주의적 관점에 반대해 그들의 연결성을 인정하고 그들 간의 공감과 유대를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지 차이를 무화하고 동일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그들의 조화로운 관계가 아무런 문제없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주지시킨다. 인간과 동물의 공생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인간중심주의이다. 위 두 작품에는 공통적으로 동물에 대한 인간의 폭력에 반대하는 인간 주체조차도 내면화하고 있는 뿌리 깊은 인간중심주의가 이야기된다. 그들은 공통되게 동물의 인간에 대한 예의 없음을 질타한다.³⁷

35 이상, 「獵」, 위의 책(2005a), 169~173쪽.

36 인간의 옷을 벗은 나체의 인간인 나는 나체의 황과 꼭 닮은 존재로 말해진다. 황의 나체는 실상 황이 입고 있는 그의 옷이다. “나의 沐浴시간은 獵의 勤務시간 속에 있다”는 이를 말해 준다. 이상, 「獵의 記 作品 第二番」, 앞의 책(2005a), 181쪽.

37 「인류를 위하여」의 아이는 잠옷 차림으로 강아지 L에게 이끌려 그의 가정집을 방문하는데, 손님으로서의 예의를 갖추지 못하게 한 L에 대해 분개한다. 또한 L의 사춘 형이 짐승 이면서도 분수를 모르고 자신에게 깽뚫이 인사하지 않는 데 대해 꽤 섭씨 여긴다. 한편, 「황의 기 작품 제2번」의 나는 자신의 목장의 술한 개들을 실험동물로 사용해 죽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하고, 상찬받으려 하는 R의학박사의 팔을 물어뜯은 황의 충정에 감동받으면서도 위 황의 공격 행위가 “社會 一般의 禮節”에 어긋난다며 꾸짖는다.

한편 공감과 긴밀한 유대를 기반으로 한, 종 경계를 횡단하는 인간-개 되기가 「황」 연작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이 시에서 그것은 두 가지 층위를 가지며 그것이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류를 위하여」의 경우와 변별된다. 그 첫 번째 층위가 인간(나)-개(황) 되기라는 복수종 되기이고 두 번째 층위가 이상(나)-에로센코(황) 되기라는 복화술사 되기이다. 후자는 이상과 에로센코의 아나키즘적 문학적 연대를 상징한다.

먼저 복수종 되기부터 살펴보자. 「황의 기 작품 제2번」³⁸에서 황은 나의 목장을 수위하는 개다. 황은 나의 목장의 개들을 실험동물로 희생시킨 R의학박사가 희생동물공양비 제막식 기념 메달을 가슴에 달려는 찰나 그의 오른팔을 물어뜯는다. 이 행위는 생명폭력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상찬받으려는 행위를 저지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황의 지성적, 실천적 면모를 보여 준다. 황은 “날카로운 嗅覺”으로 “播種後の 成績을 소상히 豫言”하는 직감력과 예지력의 소유자다. 게다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나의 “逆倒病”, 곧 데카당스라는 문학의 병의 성격을 중화시켜 나의 편파적 지식을 좌우를 겸비한 총체적 지식으로 변모케 한 존재이기도 하다. 이러한 황은 최종적으로 “人間 이외의 모든 腦髓”에 해당하는 존재로 언명된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황의 위치가 나의 배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비로소 전술한 바 있는, 연결신경을 매개로 이어져 있는 나의 두 개의 뇌수가 무엇인지가 밝혀진다. 그 하나가 나의 머리에 위치한 인간의 뇌수라면 다른 하나는 나의 배에 위치한 황으로서의 인간 이외의 자연의 뇌수이다. 그렇다면 이 두 뇌수를 이어 주는 연결신경은 식도인 셈이다. 이로써 나와 황이 나의 신체라는 생물학적인 하나의 공간을 공유하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 같은 존재임이 확인된

바실리 에로센코(저), 김정행(역), 「인류를 위하여」, 앞의 책(2007), 211~213쪽; 이상, 「獺의記 作品 第二番」, 위의 책(2005a), 179~180쪽.

38 이상, 「獺의記 作品 第二番」, 위의 책(2005a), 179~184쪽.

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와 동일한 이미지로 「지도의 암실」의 에로센코 독서 장면이 환기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2. 근대 동아시아의 재난에 대처하는 이상-에로센코 되기: 복화술적 문학적 연대

「황」 연작의 인간-개 되기의 두 가지 층위 중 이상(나)-에로센코(황) 되기·복화술사 되기라는 그들 간의 문학적 연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에로센코 독서 장면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지도의 암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듯, 만주사변과 제1차 상해사변으로 암운에 뒤덮인 동아시아의 상황에 대한 이상의 고민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³⁹ 여기서 이상이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선택한 전략은 당대 동아시아의 무대에서 모습을 감춘 에로센코를 그의 문학적 연대의 대상으로 호출해 오는 것이다. 에로센코 독서 장면⁴⁰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여기서 독서 과정은 에로센코 작품을 독서해서 얻은 양식이 그의 식도를 거쳐 배에 위치한 에로센코의 뇌수로 이동해 소화 과정을 밟는 것으로 제시된다. 이는 「황의 기 작품 제2번」의 식도로 연결되어 있는 나의 두 개의 뇌수 묘사와 부합한다. 즉 「지도의 암실」의 그의 배에 위치한 에로센코의 뇌수와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신체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그의 에로센코 독서 과정이 「황의 기 작품 제2번」의 나의 배에 위치한 개 황과 생물학적으로 하나의 신체 공간을 공유하는 것으로 제시되는 나의 복수중 되기 과정과 정확히 맞물리고 있다. 이 내적 상호텍스트성을 고려하면 ‘에로센코=황’이라는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 이 등식이 맞는 것이라면 이상

39 란명, 앞의 글(2010a); 신형철, 「이상의 텍스트에 새겨진 1930년대 초 동아시아 정세의 흔적들: 이상문학의 정치성 해명을 위한 시론(試論)」, 『인문학연구』 45(2011), 127~155쪽.

40 이상, 「地圖의暗室」, 앞의 책(2005b), 150쪽.

이 에로센코를 공통감각적 존재로 인식했으며, 하나의 생물학적 신체 공간을 공유할 만큼 그와의 연대를 지향했음이 증명될 것이다. 위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지「황」연작 전체에서 형상화되고 있는 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無題(무제)」⁴¹에는 황의 전신인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한 마리의 개”가 등장한다. 이 개는 “한가로운 阿房宮 뒤뜰”의 쇠로 된 우리 속에 갇혀 있는데, 이 우리에 걸린 세월이 훼손된 문패에는 “새한테 쪼인 글씨”와 “얼마간의 아라비아數字”로 된 “年號같은 것이 쓰여져 있”다. 신형철은 란명의 견해⁴²를 참조해 이 시의 배경이 “중국의 어느 지역처럼 보이도록 설정돼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위 문패의 연호에 착목해 개를 감금한 주체가 일본(인)임을 추정한다.⁴³ 이러한 추정은 타당성이 있다. 황의 전신·황을 감금한 주체가 일본(인)이라는 점은 「황」⁴⁴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無題」의 개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황은 자신이 “MADEMOISELLE NASHI … 에게 幽閉당하고 있”음을 “나”에게 고백한다. 황이 위 붙어로 말한 나시 양은 일본어로 바꾸면 ‘梨(な)嬢’인데, 이 일본어 이름의 여성이 「1931년(작품 제1번)」⁴⁵에 등장한다. 그녀는 4연에서는 나가 “R青年公爵”과 해후해 “그의 紹介”로 알게 된 여성으로, 12연에서는 “別報” 속 “R青年公爵 家傳의 발(簾)에 감기어서 慘死”한 여성으로 등장한다. 그렇다면 “R青年公爵”과 관련되면서도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梨嬢”은 위 시의 황을 유폐하고 있는 “MADEMOISELLE NASHI”와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공통적으로 나시 양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황과 R청년공작의 관련성을 살펴보아야 한다.

41 이상, 「無題」, 앞의 책(2005a), 160~163쪽.

42 란명, 「昭和帝國的 담론 공간과 李箱적 모더니즘: 東洋의 表象으로서의 “獵” 및 “복화술”과 “역도병”의 본질」, 『한국 현대문학연구』 32(2010b), 51~53쪽.

43 신형철, 「이상(李箱) 문학의 역사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2), 83쪽.

44 이상, 「獵」, 앞의 책(2005a), 169~173쪽.

45 이상, 「一九三一年(作品 第一番)」, 앞의 책(2005a), 175쪽.

우선 이를 논의하기에 앞서 앞으로 돌아가 「황」⁴⁶에 언급된 황의 상황이나 심경, 모습과 행동, 나와와 대화 속에 나타난 황의 면모부터 살펴보자.

이 시는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 황은 나에게 나시 양에 의해 유폐당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말한 뒤 입에 문 권총을 내밀며 그녀를 죽여 달라고 애원한다. 이로 인해 나는 황이 그녀에게 감금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후 사색에 잠긴다. 이 사색 속에서 나는 위 사실의 발견의 기쁨이 신속히 두려움 혹은 슬픔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느끼는데, 그 이유는 내가 위치한 자리가 일제 치하의 감옥과 같은 현실이기 때문이다. 즉 황과 나는 모두 일본(인)에 의해 우리에게 갇힌 존재인 셈이다. 2부는 수용소의 인간으로서의 내가 감옥 탈출을 위한 자신의 현실 저항의 무기를 황 앞에 선보이는 장면을 담고 있다. 여기서 내가 선보이는 “피스톨”이라는 문학적 무기는 “脈搏의 몬테·크리스트처럼 뼈를 파헤치고 있”는 “墓掘”로 표현된다. 이는 에드몽 당테스의 시체로의 위장과 흡사한 상태의, 이상이 계획하는 매춘 탐구를 담은 데카당스 문학을 뜻한다. 이어지는 대목은 나의 문학적 무기에 대한 황의 수궁이나 소감이라고 할 수 있다. 3부는 쇠 우리 속에 갇힌 황에 대한 소개이다. 황은 나에게 “가엾은 개”, “언제나 그 문패 裏面만을 바라보고는 憤懣와 厭世를 느끼”고 “괴로워하”며 “그것(문패-인용자)을 睥睨”하는 모습으로 비친다. 이 우울한 황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나와와 대화가 이뤄진다. 이 대화를 통해 황이 “東洋사람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研究했”으며, “東洋사람의 屍體로부터 마침내 東洋文字의 奧義를 發掘”한 전적이 있는 존재임이 드러난다. 황이 동양과 관련된 자신의 이야기를 “故鄉애기를 하듯” 했다는 점이나 나시 양을 불어로 말한 것을 감안하면 황의 고향이 동양이 아니며 국적이 서양이라는 것, 그가 동양을 제2의 고향으로 여겼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대

46 이상, 「獵」, 앞의 책(2005a), 169~173쪽.

화 후 황은 “오렌지빛 구름에 노스텔자를 呼訴”하며 “안팎을 번갈아가며 뒤쳐
어 보이고 있”는 모습으로 제시된다.

전술한 황의 전신 및 황의 상황이나 특성들을 황의 것으로 집결시켜 정리
해 보면,⁴⁷ 황이 일본 경찰에 체포, 구류되어 박해받다가 추방된 후 중국에 머
물려 있던 에로센코를 가리키고 있음을 눈치 챌 수 있다. 「시간의 할아버지」
에서 확인되는 북경생활 당시 에로센코의 향수나 고독, 괴로움 등도 이를 뒷
받침해 주는 증거다. 또한 그가 「연분홍빛 구름(桃色の雲)」의 작가라는 점도
“오렌지빛 구름에 노스텔자를 呼訴”하는 황이 누구인지를 간접적으로 암시
해 준다. 동아시아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아시아 나라를 여행하면서 각 나라의 전통음악 및 전래 이야기를 수집해
글로 남기고 아나키즘 활동을 펼친 바 있는 에로센코는 동양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했으며 그들의 시체로부터 마침내 동양문자의 깊은 뜻을
발굴한 전적이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인류를 위하여」에서 강아지 L 되기를 보여 주는 아이가 에로센코
의 반영이라는 점, 이상이 주목한 나까무라 쓰네의 〈에로센코像〉의 주된 색감
이 황색 계열임을 감안하면 ‘黃’과 ‘犬’이 결합해 이뤄진 ‘獾’이라는 한자이름
을 부여받은 존재가 에로센코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이 20세기 초 동아
시아에서의 피압박자로서, 초민족적 세계주의적 연대를 지향하는 아시아 개
념에 부합하는 존재로서 에로센코를 인식했으며 이로 인해 그를 아시아를 떠
올리게 하는 ‘황’이라는 색채 이미지를 가진 개 ‘獾’으로 형상화했을 가능성

47 첫째, 황은 일본(인)에 의해 중국에 유폐되어 있으며 일본(인)에 대한 저항심·적개심을 갖
고 있다. 둘째, 황은 국적이 서양이지만 동양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긴다. 셋째, 황은 동양
인을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연구했으며, 동양인의 시체로부터 동양문자의 깊은 뜻을 발굴
한 전적이 있다. 넷째, “오렌지빛 구름에 노스텔자를 呼訴”하는 존재로 향수와 우울, 괴로
움 등에 시달린다. 다섯째, 생명 보호의 역할을 하며, 지성적, 실천적 면모뿐만 아니라 직
감력과 예지력, 문학적 감식력이 있는 존재다.

이 있다. 그렇다면 위 등식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은 문제는 「1931년(작품 제1번)」과 관련해 미뤄 두었던 문제, 곧 공통적으로 나시 양과 적대적 관계에 놓여 있는 황과 R청년공작의 관련성을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1931년(작품 제1번)」이 일제 치하 수용소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벗어나 그러한 삶을 강요하는 생명정치에 대해 저항하는 문학예술가로서의 삶을 기획하는 작품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 시의 3~4연은 백부 사일을 기점으로 자연인 김해경의 뇌수(腦髓)를 인공인 이상의 뇌수(腦髓)로 어떻게 교체할 것인가의 문제를 담고 있다. 4연에서 본격적으로 나의 “腦髓替換”을 위한 뇌수술, 곧 김해경의 뇌수를 이상의 뇌수로 교체하는 실험이 진행된다. 그 결과가 “나는 남몰래 精虫의 一元論을 固持하고 精虫의 有機質의 分離實驗에 成功하다./ 有機質의 無機化問題 남다”로 표현된다. 실험의 성공은 위 뇌수치환 실험에서 나가 자신의 몸에 기생하는 폐흡충과 식민지 조선에 거시 기생하는 일본, 조선총독부 기수인 김해경을 기생충이라는 동일한 실체로 간주하는 사상(“精虫의 一元論”)하에 일본 식민 당국에 기생하는 김해경의 뇌수를 분리해 내었음을 의미한다. 나가 언급한 미해결의 문제는 ‘精虫’에 해당하는 김해경의 유기체적인 뇌수를 이상의 무기체적인 문학적 뇌수로 교체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 해결에 있어 큰 도움을 준 존재로 “CREAM LEBRA의 秘密”을 알려 준 R청년공작이 언급된다. 김해경의 뇌수를 이상의 뇌수로 교체하기 위해서는 기생충 퇴치가 요구되는데, R청년공작으로부터 듣게 된 위 비밀은 이와 관련된 것이다. “CREAM LEBRA”는 나병 치료약으로 알려진, 해독과 살충의 효능이 있는 약재 ‘大風子油’(대풍자유)로 추정된다.⁴⁸ 그렇다면 위 비밀은 일제에 기생하는 김해경의 뇌수를 일제에 저항하는 이상의 뇌수로 성공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해 주는特效약에 해당할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일제에 대해 저항하

48 란명, 앞의 논문(2010b), 65쪽 각주 34번.

는, 문학과 관련된 어떤 정신·사상일 것임이 당연하다. 그것의 정체는 R청년 공작이 알려 준 비밀과 관련해 이 작품과 연결되어 있는 「지도의 암실」의 에로센코 독서 장면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여기서 그는 에로센코의 작품으로부터 “차츰 것을 곳 찾기도 무엇을 차졌는지 알지 안는다”⁴⁹ 그 비밀로 감춰 두고자 했던 것은 에로센코의 작품에서 발견한 그의 아나키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R청년공작으로부터 듣게 된 위 비밀은 이를 일컫는다. 황이 구체화되기 이전 작품인 위 시의 R청년공작은 에로센코일 가능성이 크다.⁵⁰

이상의 아나키즘적 지향은 위 시의 나머지 연들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들 중 9연에는 검열과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공포를 느끼면서 설계하는 네 발로 걷는 동물 되기(“第三番째의 발과 第四番째의 발의 設計”)가 언급되는데, 이 아나키즘적 혁명의 제1보 기획의 실현 모습이 「황」 연작의 인간-개 되기의 두 가지 층위임을 헤아려 볼 수 있다. 이로써 이상이 초기 문학 시절부터 염두에 둔 아나키즘적 지향이 에로센코나 그의 문학을 통해 영향받은 아나키즘 사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확인되는 문학 적 연대가 「황의 기 작품 제2번」 ‘記三’⁵¹에서는 나의 머리 및 배에 위치한 나의 뇌수 및 황이라는 인간 이외의 자연의 뇌수를 연결하는 생명공학 실험 행위로 형상화된다. 이는 위 등식을 고려할 때, 이상의 뇌수와 에로센코의 뇌수의 연대를 뜻하는 것이다. “나의 腦髓가 擔任 支配하는 사건의 大部分을 나는 獐의 位置에 貯藏했다”는 것은 에로센코나 그의 문학, 아나키즘 사상에 큰 영

49 이상, 「地圖의暗室」, 앞의 책(2005b), 150쪽.

50 “R青年公爵”은 에로센코의 본명 앞부분 ‘Ero’에서의 ‘R’과 초민족적 상호부조 사상을 전개한 에로센코나 그에게 큰 영향을 준, 공작 작위를 갖고 있던 상호부조론의 아나키즘 사상이 크로포트킨에 대한 존경심의 흔적물로서의 ‘青年公爵’이 합쳐진 명칭으로 추정된다.

51 이상, 「獐의 記 作品 第二番」, 앞의 책(2005a), 181쪽.

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또한 그것이 “一冷却되고 加熱되도록一/ 나의 規則을一그러므로一리트머스紙에 썼다/ 배一그 속一의 結晶을 加減할 수 있도록 小量の 리트머스液을 나는 나의 食事に 곁들일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에로센코로부터 받은 인간적, 문학적, 사상적 영향을 한편으론 냉철하게 비판하고 다른 한편으론 열렬하게 지지하면서 자신만의 삶·문학·사상의 규칙을 마련해 그로부터 받은 영향을 조율하고자 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시각적 인간 이상의 뇌의 언어(발음)와 공통감각적 인간 에로센코의 배의 언어(발음)가 연결, 융합된다. 이 문학적 연대가 복화술사 되기임이 초두 및 결미의 구절을 통해 암시된다.

V. 결론

본고는 「지도의 암실」의 에로센코 독서를 매개로 삼아 이상과 에로센코의 연대가 초기 이상 문학에 어떻게 현상하며 그것이 우생학 및 사회진화론의 지식과 국가권력이 유착되어 전개된 근대 동아시아의 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이상의 초기 텍스트에 나타난 에로센코로부터 영향받은 이상의 아나키즘적 지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고가 중점적으로 다룬 에로센코의 「인류를 위하여」와 이상의 「황」 연작은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급진주의자들 사이에서 진행되었던 아시아 담론이 지향한 인간 종 내의 피압박자·피압박 민족의 해방을 위한 초민족적, 국제적 연대를 함의할 뿐만 아니라 종래의 인간과 동물 종 구분의 해체 및 종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로까지 아시아 개념을 확장시키는 탈인간중심주의적 면모를 보여 준다. 이 두 작품은 인류 역사 이래 휴머니즘의 뿌리 깊은 인간중심주의에 침윤된 인류가 비인간 동물들을 도구화하고 이들에 대해 생명폭력

을 일삼아왔을 뿐만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다른 인종들, 식민지인들, 소수자 및 약자들에 대한 도구화와 생명폭력을 자행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위 작품들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성찰이나 비판은 인간 종 내의 구분과 차별, 억압이나 폭력보다 더 오래되고 강고한 것이 다른 종에 대한 것이며, 그 토대 위에 인간 종 내부의 이분법적 위계질서의 구축 및 그에 따른 차별과 억압, 생명 폭력의 문제들이 양산되어 왔음을 보여 준다.

근대 인류의 퇴보와 야만성을 공통적으로 직시하고 비판하는 에로센코와 이상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한다. 인간중심주의에 따른 다른 종들과의 위계적, 폭력적 관계 자체를 공생을 위한 상호부조적 방식으로 바꾸어야 인류 사회 내의 제반 차별과 억압, 폭력의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인류의 참된 진보를 이룩할 수 있다는 이들의 공통된 인식은 위 작품들에서 종 경계를 초월한 공감과 유대를 통한 인간-비인간 되기라는 연대의 해방 전략을 통해 제시된다. 물론 위 인간-비인간 되기는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들에 의해 창안된 아시아 개념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를 수렁 속으로 빠트리는 제국주의라는 강권에 대항하고 억압받는 자들의 해방을 피하기 위한 세계주의적 전망의 문학적 연대를 함의한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휴머니즘의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연대의 틀까지도 초월해 그 영역을 비인간 동물에까지 확장시키는 발전적 면모를 보여준다. 연대의 대상을 인류의 삶의 역사와 양태를 함께 일구어 온 비인간 동물들로 확장시켜 그들과의 종을 초월한 연대를 통해 상호부조적 관계 맺기가 가능할 때 인류의 참된 진보도 이룩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신유물론·포스트휴머니즘과도 접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현재적 의의를 갖는다.

참고문헌

1. 1차 자료

- 바실리 예로센코(저), 길정행(역), 『사랑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슬픔』, 서울: 하늘연못, 2007.
- 이상, 『정본 이상문학전집 01-시』, 김주현 주해, 서울: 소명출판, 2005a.
- 이상, 『정본 이상문학전집 02-소설』, 김주현 주해, 서울: 소명출판, 2005b.
- 이상, 『정본 이상문학전집 03-수필·기타』, 김주현 주해, 서울: 소명출판, 2005c.

2. 논저

- 고현혜, 「이상의 컨버전스와 보자기 패러다임: 「지도의 암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85, 2019, 353~421쪽.
- 고현혜, 「이상의 「실화」, 국화(菊花)와 영란동(鈴蘭洞)」, 『민족문화연구』 92, 2021, 305~349쪽.
- 김미영, 「李箱 텍스트에 등장하는 예술가들」, 『구보학보』 9, 2013, 171~196쪽.
- 대한감염학회, 『감염학』, 파주: 군자출판사, 2007.
- 란명, 「이상 <지도의 암실>을 부유하는 “상하이”: 동아시아 현대문학생성의 시점에서 본 요코미쓰 리이치 수용」, 蘭明 외, 『李箱적 越境과 詩의 生成: 『詩と試論』 수용 및 그 주변』, 서울: 역락, 2010a, 23~49쪽.
- 란명, 「昭和帝国の 담론 공간과 李箱적 모더니즘: 東洋의 表象으로서의 “獵” 및 “복화술”과 “역도병”의 본질」, 『한국 현대문학연구』 32, 2010b, 39~71쪽.
- 방민호, 『이상문학의 방법론적 독해』, 서울: 예옥, 2015.
- 송민호, 「모더니티의 침단과 암실 사이의 공간(들): 이상, 예로센코, 나카무라 쓰네」, 『‘이상’이라는 현상: 작가 이상이 경험한 동시대의 예술과 과학』, 서울: 예옥, 2014, 426~443쪽.
- 신규환, 「지방병 연구와 식민지배: 1927년 영흥 및 해남지역 에메틴 중독사건을 중심으로」, 『醫史學』 18-2, 2009, 173~188쪽.
- 신형철, 「이상의 텍스트에 새겨진 1930년대 초 동아시아 정세의 흔적들: 이상문학의 정치성 해명을 위한 시론(試論)」, 『인문학연구』 45, 2011, 127~155쪽.
- 신형철, 「이상(李箱) 문학의 역사철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이동매, 「동아시아의 에로센코 현상」, 『한국학연구』 45, 2017, 193~220쪽.
- 이보영, 『이상평전: 암호적 예술의 숲을 찾아서』,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 장성규, 「1920년 ‘혼춘사건(琿春事件)’과 일본군의 ‘간도출병(間島出兵)’ 재검토」,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 조원기, 「일제의 만주침략과 간도참변」,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1, 2012, 203~234쪽.
- 조은주, 「이상의 「獵」 연작시와 ‘개’ 이미지」, 신범순 외, 『이상의 사상과 예술: 이상 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 2』, 서울: 신구문화사, 2007, 121~148쪽.
- 피터 싱어(저), 김성한(역), 『동물해방』, 고양: 연암서가, 2012.
- 황동연, 「20세기초 동아시아 급진주의와 ‘아시아’ 개념」, 『大東文化研究』 50, 2005, 121~165쪽.
- 劉菲, 「魯迅と『エロシエンコ童話集』」, 『熊本大学社会文化研究』 7, 2009, 221~231쪽.
- アニケーエフ・セルгей・イワーノヴィチ, 「大正期日本滞在中エロシエンコと在日朝鮮人との接触の可能性について」, 『동북아시아문화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집』,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6, 85~88쪽.
- 太田哲男, 「高杉一郎とエスペラント」, 『桜美林大学研究紀要 人文学研究』 3, 2023, 172~189쪽.
- Kuplowsky, Adam, “Introduction,” in Eroshenko, Vasily(ed.), Kuplowsky, Adam (trans.), *The Narrow Cage and Other Modern Fairy Tal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3, pp. 11~41.

국문초록

본고는 초기 이상 문학의 아나키즘적 지향 확인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도의 암실」의 에로센코 독서를 구심점으로 삼아 에로센코와의 연대가 초기 이상 문학에 어떻게 현상하며 그것이 우생학 및 사회진화론의 지식과 국가권력이 유착되어 전개된 근대 동아시아의 재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첫째로, 두 작가의 연대의 토대인 에로센코 독서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시간의 할아버지」와 「인류를 위하여」가 독서 목록에 해당되는지를 이상의 초기 텍스트들과 비교, 검토해 규명한다. 그 결과 전자와 관련된 작품이 「지도의 암실」이며 후자와 연관된 작품이 「황」 연작임을 확인하였다. 둘째는 「인류를 위하여」와 「황」 연작의 관련성을 실험의학 속 인간과 동물 관계라는 공통된 테마하에 고찰하면서 이 두 작품이 함의하는 바가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아나키스트들에게 있어 새롭게 의미화된 (동)아시아와 관련된 것임을 밝힌다. 이 두 작품이 공통적으로 문제 삼는 실험용 동물·인간이 처한 재난의 상황은 일제의 동아시아 점령 기획과 연관된 참변과 관련이 있다. 셋째, 「인류를 위하여」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황」 연작의 두 가지 연대가 제시하는 해법을 살펴본다. 첫 번째는 우리 속 동물·수용소의 인간 해방을 위한 이상과 에로센코의 공통된 전략인 공감과 유대를 통한 종 경계 횡단 및 복수종(인간-개) 되기이다. 두 번째는 만주사변과 제1차 상해사변으로 암운에 뒤덮인 동아시아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상이 꾀하는 전략이다. 이는 1930년대 동아시아의 무대에서 모습을 감춘 인류애의 표상으로서의 아나키스트 에로센코를 그의 문학에서 황(獠)으로 호출해 벌이는 복화술사(이상-에로센코) 되기, 곧 복화술적 문학적 연대에 대한 것이다.

투고일 2026. 4. 4.

심사일 2026. 5. 3.

제재 확정일 2026. 5. 26.

주제어(keywords) 이상(Yi Sang), 에로센코(Eroshenko), 인간(humans), 동물(animals), 연대(solidarity)

Abstract

The Solidarity between Yi Sang and Eroshenko: Focusing on Human–Animal Relations

Go, Hyeonhye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solidarity between Yi Sang and Eroshenko manifests in Yi Sang's early literature, particularly in response to the disasters of modern East Asia that emerged through the collusion of eugenic and Social Darwinist ideologies with state power.

First, to identify the reading contents of Eroshenko's work, which forms the basis of the solidarity between the two writers, the article compares *Father Time* and *For the Sake of Mankind* with Yi Sang's early texts to determine whether these works can be included in the reading list. The analysis confirms that *Darkroom of a Map* is associated with the former text, whereas the *Hoang* (獐) series is associated with the latter.

Second,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For the Sake of Mankind* and the *Hoang* series through their shared theme of human–animal relations in experimental medicine, the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implications of these two works connect to the idea of East Asia as newly conceptualized by East Asian anarchists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common issues raised by these two works—the experimental animals and the disasters faced by humans—are related to the crises produced by Japan's plan to occupy East Asia.

Third, the article examines the solutions presented through the two solidarity contents in the *Hoang* series, which is closely connected to *For the Sake of Mankind*. The first solution involves crossing species boundaries and becoming multispecies through empathy and ties, a strategy shared by Yi Sang and Eroshenko for the liberation of animals and humans confined within cages and camps. The second concerns Yi Sang's strategy to confront the crisis in East Asia following the Manchurian Incident and the First Shanghai Incident. This strategy takes the form of a ventriloquistic literary solidarity in which the anarchist Eroshenko, who disappeared from the East Asian stage in the 1930s, is represented as *Hoang* within Yi Sang's literature.